

## 아이들의 세상을 넓히는 일



유호수 천양원 사무국장은 소외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아이들을 원가정에 복귀시키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왔다.

유호수 천양원 사무국장은 최근 본업인 복지업무보다 공사현장에 들를 일이 더 많다. 오는 10월 충청권에서 최초로 문을 여는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업무 때문이다. “그동안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천양원의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해왔지만, 양쪽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군요. 다행히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우리 법인이 건설과 운영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낯선 업무에도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온 유호수 사무국장의 초심은 여전했다.

### 중증장애인 복지에서 아동 복지로

유호수 사무국장은 2001년 누나의 권유로 사회복지에

발을 디뎠다. 충남 논산의 중증장애인시설 ‘성모의마을’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낀 그는 사회복지학과 야간과정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2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7년을 일한 후에는 대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의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양원으로의 이직은 유호수 사무국장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제도가 생긴 첫해라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 아이들은 제각각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뒤처지거나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자해를 하곤 했다. 부모의 학대나 이혼, 가정해체 등의 위기를 겪다 입소하는 탓이다.

“아동복지시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무사히 자

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설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진 문제를 잘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외부 자원 연계

유호수 사무국장은 아이들의 경험과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외부자원 연계에 나섰다. “2007년 천양원에 입사한 후 오케스트라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적성을 개발해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었지요. 여러 지원사업에 응모했지만 내리 7번을 떨어져 포기하려던 순간에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한 오케스트라단은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왔고, 3명이 음악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소년 자발적 여행 지원사업’을 통한 ‘제주도 자전거 여행’에서 얻은 보람도 컸다.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즐기는 모습 덕분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무기력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쉽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유호수 사무국장은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 천양원 아이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설현장에서 도면을 살펴보는 유호수 사무국장.

들의 40%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었다. 종합 심리검사에 이어 상담, 인지능력 향상 훈련, 사회성 훈련을 거치자, 아이들의 인지능력은 향상됐다. 한 발 더 나가 유호수 사무국장은 사업 종료 후 매뉴얼 개발에 도움을 주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 내가 가진 역량으로 남을 돕는 일의 가치

그동안 꿈꿔오던 일도 하나 이뤘다. 오랫동안 천양원 아이들과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다가 드디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 오는 8월 16명의 아이들이 중국 하얼빈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아쉽게도 동행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

15년간 그가 연계한 사업은 총 199건에 이른다. 성공한 숫자 뒤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패와 도전이 숨어 있다. “제가 가진 역량만큼 남에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능력을 계속 키워야죠.” 그래서 유호수 사무국장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뜻이 있으면 길도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글 최주연



제주도 자전거 여행 중 한라산에 오른 유호수 사무국장(왼쪽 두 번째).